

‘완도~제주 뱃길’ 해운사-하역업체 계약해지 갈등

항만하역업체 “일방적 해지 통보 갑질” 법원에 가처분신청 한일고속 “1년 단위 계약 기간 만료...하역업무 통합 작업”

완도-제주간 여객선 운항업체인 한일고속이 15년 동안 함께 해 온 항만하역업체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하역업체 측이 ‘일방적 계약해지 갑질’이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일고속은 최근 완도항 항만하역업체인 한일운송 측에 ‘화물운송 주선 및 하역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유는 1년 단위 계약기간 만료였다.

한일고속과 한일운송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1년 단위로 완도-제주간 운항 여객선의 화물운송 주선 및 하역 계약을 맺고 선박과 차량 등의 하역

업무에 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으나 15년 만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일운송은 계약 이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지난 14일 법원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또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계약 만료시점인 12월 말 이후에도 하역업무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한일고속이나 신규 하역업체와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한일운송 측은 한일고속이 특별한 이유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지

난 2007년 첫 계약부터 부당한 갑질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불필요한 법인 인수 계약 전 손실분담금 요구, 1년 단위 계약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일운송 측은 그동안 이용객 유치를 위해 지게차 구입과 구조물 제작, 대표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 10억여원에 달하는 투자를 했는데도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반박했다.

한일고속 관계자는 “지난 15년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부당한 행위 또는 한일고속에 손해를 끼친 일이 없다”며 “공격적인 투자와 영업 활동으로 매출을 늘려 온 하역업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대기업의 갑질로 받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일운송 측은 법적 대응과 함께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인어서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1월 이후 자칫 물리적 충돌이나 운송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일고속 측은 1년 단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계약해지를 진행했다며 갑질 의혹을 일축했다.

또 지난 2019년 하역업무 통합작업을 진행하려다가 2년여 동안 유예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계약해지 주장을 반박했다.

한일고속 관계자는 “12월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있고 부당한 갑질은 있을 수 없다”며 “완도-제주간 여객선 운항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제주간 여객선 운항은 1180명 정원의 실버클라우드호가 오전과 오후 하루 두차례 왕복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이크누스 우항리엔시스 은메달 앞면

해남 익룡 발자국 화석 기념 메달 2종 출시

해남 우항리에서 발견된 익룡 발자국 화석 ‘해남이크누스 우항리엔시스’를 모델로 한 기념 메달 2종(은·백동)이 출시됐다.

해남이크누스는 익룡 발자국 화석으로는 아시아에서 최초이자 전 세계에서 7번째이며, 발견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익룡 발자국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메달은 전남대 한국공룡연구센터와 협업을 통해 만들었다.

은메달의 경우 황금빛 공룡알을 입체형으로 만들어 외부 메달과 결합한 신기술이 적용됐는데, 공룡알과 발자국 화석을 발굴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고 한국조폐공사 측은 전했다.

포장도 한반도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과 공룡알을 모티브로 디자인했다. 종이 카드형 보증서에는 위·변조 방지기술을 적용했다.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높은 학술 가치로 주목받고 있는 한반도 공룡을 첨단 주화 기술로 재현했다”며 “한반도의 공룡과 조폐공사 기술력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달은 내년 1월 7일까지 선착순으로 조폐공사 온라인쇼핑몰(www.koreamint.com)과 플래그십 스토어 서울 마포 아웃·디퓨전 등지에서 판매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 ‘땅끝마실 프로그램’ 장기체류형 상품으로 개발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국비 1억 확보

해남군이 2022년도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공모한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은 방문지역에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 지역다움을 체험하고 지역민들의 삶을 공유하는 관광(여행) 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서류심사와 현장 평가를 통해 해남군을 포함한 9개의 지자체가 새로 선정됐다.

군은 코로나로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생활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해남 생활관광 프로그램 ‘땅끝마실’을 시범운영해 2개월간 38팀 168명의 관광객

이 생활관광을 체험하고, 지역 소득을 창출하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땅끝마실’ 생활관광 프로그램을 3박4일형, 6박7일형 등 장기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개발·운영하고, 해남패스와 마실키트 등 체험객에게 다양한 편의 제공 프로그램도 마련해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새로운 관광산업 분야인 생활관광이 지역에 더욱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지역 활성화 및 주민 소득을 창출해 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생활관광 프로그램인 ‘땅끝마실’에 참여한 관광객들이 와인시식 체험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목포시, 대형폐기물 배출 모바일 앱 서비스

목포시가 내년 1월부터 대형폐기물 배출 모바일 앱을 서비스를 시행한다.

대형폐기물 배출 모바일 앱 ‘빠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현재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동행복지센터에서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하거나,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앱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형폐기물을 납부필증 없이 모바일 결제로 배출할 수 있다.

특히 민간 이삿짐업체와 연계해 운영되는 ‘내러드림’은 혼자서 배출할 수 없는 무거운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로 운반할 수 있어 용이하게 대형폐기

물을 처분할 수 있다.

앱에서는 ‘중고매입’도 운영되는데 중고재활용센터와 연계해 활용 가치가 있는 중고 가구가 가전제품 등을 입찰로 판매하는 서비스로서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이 같은 앱서비스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대형폐기물 간편 결제 서비스 운영업체인 (주)갑다(대표이사 고재성)와 빠기를 도입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개월여 동안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시는 앱서비스가 시민들의 생활편리를 증대하는 한편 배출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통한 신속한 수거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목포수협, 위판고 1980억원 달성

2년 연속 전국 1위 올 2000억 위판고 예상

목포수협(김정룡 조합장)이 지난 27일 기준 1980억원의 위판고를 기록, 전국수협(지구별)에서 1위를 달성했다.

목포수협은 올해 코로나19로 수협위판장이 폐쇄될 수 있는 최악의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대책과 관리를 추진해 왔다.

또 대형선망과 트롤어선 등 외지어선 유치와 위판서비스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 최고 위판고를 달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목포수협은 김정룡 조합장 취임 이후 각종 위판제도 개선 및 투명한 판매제도 확립, 생산실명제, 이상차 규격화, 어류 선별기 등을 도입했다.

목포수협 관계자는 “소비자와 상인들에게 공정한 거래를 통한 신뢰가 덧붙여지면서 2년 연속 전국 1위 위판고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연말까지 기상상태와 조업여건에 따라 2년 연속 2000억원 이상의 위판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수협은 지난해에도 2000억원 이상의 위판고를 달성하면서 전국 1위를 기록, 수협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월출산 탐방로 상습 결빙

구름다리~경포대 능선 삼거리 내년 2월28일까지 출입 금지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광선)는 겨울철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2월28일까지 상습 결빙구간인 구름다리 종점-경포대 능선 삼거리까지 1.2km 구간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통제되는 탐방로는 구름다리 종점부-사자봉-경포대 능선 삼거리 구간으로 동절기에 상습적으로 결빙되고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매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해당 구간은 물론 정공 탐방로를 즉시 통제할 계획이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합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